

기관 단체

소식

종계수입추천요령

농림수산부는 종계수입추천요령과 종돈 및 정액수입 추천기준을 발표했다. 종계수입추천요령에 의한 수입추천요건은 ○185g 이하의 것으로서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종계(외국기관이나 육종농장의 혈통증명서 첨부) ○닭검정기관의 경제능력검정결과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종계(신품종일 경우에는 종란을 도입하여 경제능력검정) ○초생추 검역시설기준에 적합한 검역시설을 갖추어 검역에 지장이 없어야 함(검역소 의견서 첨부) ○업체별 할당량 중에서 분기별 수입계획을 제출하고 해당분기에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며 해당분기에 추천받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업체간 양도, 양수는 불허한다.

기수입된 계종중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검정소에 출품하지 않은 계종이나 대한양계협회 닭경제능력검정결과 능력이 불량하다고 판정된 계종은 수입추천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실용계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육하는 자, 일반검정을 받지 아니한 종계를 사육하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사육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추천일로부터 2개월 이

내에 종계가 도착되지 않거나 종계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계도착 보고를 하지않은 자는 종계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산 옥수수 사용중지 요청에 대한 회신

본회를 비롯한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으로 요청한 배합사료용 국산 옥수수 사용중지 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계속 배정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지난 11월30일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가 요청한 내용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대외적인 개방화 추세와 관련 축산물 수입개방이 강요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내 옥수수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값비싼 국산옥수수를 사료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축산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87년 140억원, 88년 160억원의 사료가격인상을 축산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수수경작 농민을 위한 비용부담을 축산농가만이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용 등 타용도로 전환하여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국산옥수수의 배합사료용 배정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회신은 사료는 기본적으로 국내부존자원을 이용하고 수급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에는 경제적인 사료공급에 기여하도록 수입한도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상당한 농산물이 도입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내농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체 사료곡물의 99% 이상을 저렴한 수입

곡물로 충당하여 국산수매곡물의 이용율은 1%수준에 불과한 점과 여타분야와의 균형추면 등을 고려하여 계속 사료곡물을 배정하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축산농가의 사료비를 낮추기 위한 국산옥수수 배정과 부과세 면세 등의 요청이 계속 거부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사료가격을 낮추려는 의지가 불투명하여 양축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부가세면세 영세사업자 소득신고

—양계업 '87년보다 5%상승—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연간 외형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88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할 때 '87년도 확정신고금액 보다 양계업과 낙농업은 5%, 양돈업은 3%이상을 소득신고하고 육우업은 전년도 금액 이상을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가격상승 및 출하량 증가비용을 토대로 '88년도 신고기준율을 평균 7% 높였다. 업종별 최고기준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축산물 도소매업으로 116%, 최저는 육우업, 원목도매업으로 '87년과 같은 금액인 100%기준율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규모별, 지역별 차등률을 적용, '87년도 수입금액 1천2백만원 이하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는 신고기준 증가분(100%초과분)의 50%를 낮춰주고,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100%초과분에서 50%를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별로 파로 할증, 할인제를 실시 인구 10만명이상 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100% 초과분의 40%, 부산, 대구, 인천은 30%,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는 20%를 할증한다.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10%, 기타 군이하 지역은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아틀란타 가금박람회 양계인 대거출국

미국 아틀란타에서 2월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되는 89년 가금박람회에 참석키 위해 양계인 및 양계관련인들이 대거 출국하였다.

출국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환(한국양계연구소), △배성황(삼화농원), △신흥종(고창양계), △한 희(풍한농장), △이상운(신기농장), △배필황(중원농장), △차두홍, 차상협(한일농원), △이학복(성일농장), △김영술(삼화농원), △김남기(고창축산기계), △신윝희(태을물산), △박만후(과학시스템), △신정재(과학사료), △김인식(미원사료) 등

가금처리협회 「도계업계 정착의 해」로 설정

대한가금처리협회(회장 류종래)는 지난 1월19일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기지역 20여명의 도계업자들이 모인 수도권지역회원 모임에서 '89년을 「도계업계 정착의 해」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계열화사업 확대실시, 위생계육 생산, 도계료 현실화 등을 도계업계 정착을 위한 올해의 중점업무로 결정했다.

원유가 인상 청원서 제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황영구)는 유대인상과 낙농진흥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낙농업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비에 미달하는 원유가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고 특히 폐업, 도산이 속출하고 있어 생존권 차원에서 유대를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

낙농육우협회는 kg당 322원인 원유가격을 25.2%인상된 403원으로 인상해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낙농유우협회는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유대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며 원유가 인상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2월말까지 원유가격인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재시가 없을 경우 옥외집회 등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기로 했다.

'88년도 대일돈육수출 7천7백9톤

—'87년보다 145.5%증가—

'88년도 대일 돈육수출실적은 7천7백9톤에 달해 '87년도 3천1백40톤 보다 145.5%증가되었다.

돈육수출업체는 15개업체로 제일농장이 1천8백14톤, 제일제당이 1천7백89톤을 수출했다. 월별 돈육수출물량은 하반기에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11월1천13톤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돈육에 대해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자 12월에는 4백60톤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국계우회연합회 긴급회의

계란가격 상승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계우회연합회(회장 최준구)가 긴급회의를 지난 1월 18일 소집하였다.

최근 계란생산이 감축되어 계란가격이 강세로 전향되자 상인들이 마진을 보장받기 위해 제시된 18일 현재 특란 고시가격이 59원이던 것을 공식 인상 없이 62원으로 합의에 의해 올리고 2원을 다운하여 59원에 계산서를 끊자는 제의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토의에서 고시가격을 공식적으로 인상 발표하지 않으면 전국 생산자들간에 혼선이 야기되어 오히려 상인들에게 농간을 당할 기회의 제공밖에 되지 못한다 하여 반대의를 표명하였으며 고시가격조절을 현행 조절위원회에 위임 사항으로 합의

하였다.

계란가격이 상승세에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심할 경우 5~6원까지 이중시세로 거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기회에 생산자들이 단합하여 고시가격에 준하여 당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고 다잡하였다.

소값 안정기준가격 상향조정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7월 설정된 소값 상한가 130만원, 하한가 115만원의 안정기준가격을 상한가 150~160만원과 하한가 13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와같은 안정기준가격 상향설정은 작년 7월 이후 사료비, 인건비 등 축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확정되어 소사육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작년말 현재 32개소인 한우개량단지 90년까지 1백개소로 늘려 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번식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올해 양축자금으로 9백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값 안정대책

—수입쇠고기 확대 방출하기로—

소값안정과 민속의 날 쇠고기 소비성수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쇠고기를 전국적으로 확대방출하는 소값안정 비상대책을 마련하였다.

농림수산부는 1월22일까지는 전국소비량의 1/2수준인 1천3백40두분을, 23일부터는 전국 소비량의 2/3수준인 2천두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 전문점을 통해 500g 당 3천2백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수입쇠고기 전문점 설치를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당초 계획한 서울 320개소,

부산 80개소 설치를 15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외의 직할시, 도청소재지 등 14개 대도시에 600여개소를 설치하여 전국에 1천개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와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현재 수입쇠고기가 일반 정육점을 통해 한우쇠고기로 둔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년에 도입하기로 한 3만9천톤을 상반기중에 전량 구매하고 산지소값 동향을 보고 수입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축두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산물도 줄어들어 꼬리, 족, 내장 등을 시험수입하고 있다.

축사시설 개선자금 융자증단

축사시설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되었던 축사시설개선자금 융자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양계 62농가, 양돈 141농가 등 203농가에 28억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지원농장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동급이기, 급수기, 계분시설 등 기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사부터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위한 여건조성이 안돼 있다고 분석했다.

양계산업 발전자금 47억6천만원 책정

농림수산부는 양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계란 수매비축자금 12억원 등 47억6천만원을 89년도 예산으로 책정했다.

육계계열화사업체의 정착을 위해 8개 사업체의 수매비축자금 2억원씩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도계시설 근대화를 위한 자금으로 5개소에 2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계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닭고기 60만수분을 수매할 수 있도록 9억6천만원을, 계란 3천만개를

수매할 수 있도록 12억원의 수매비축자금을 배정했다.

'88년도 배합사료생산실적 9백76만7천톤

—양계사료 2백94만7천톤—

사료협회가 집계한 '88년도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9백76만7천톤으로 '87년도 9백1만8천톤보다 8.3% 성장했다.

사료협회 회원사는 7백50만4천톤을 생산, '87년도 7백14만5천톤 보다 5%가 증가하였고 축협사료는 2백26만3천톤을 생산, '87년도 1백87만3천톤 보다 20.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사료협회는 '87년도 79.2%에서 76.8%로 줄어들고 축협은 20.8%에서 23.2%로 늘어났다.

축종별 생산량은 양계사료 2백94만7천톤(30.2%), 양돈사료 3백60만4천톤(36.8%), 낙농사료 1백61만톤(16.5%), 비육우사료 1백50만9천톤(15.5%), 기타 9만6천톤씩 생산했다. 한편 사료협회는 '89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1천30만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수산부 배합사료 수급계획 확정

—배합사료생산 1천32만톤 규모—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배합사료 생산량을 '88년 9백76만7천톤 보다 5.7%(55만3천톤) 증가한 1천32만톤으로 확정하는 '89년도 사료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사료곡물과 대두박의 수입한도량을 수요량의 10%로 증량 운용하고 사료곡물의 곡종간 사용비율은 총량관리방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사료원료 다양화 및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키로 하였다. 양축가들의 반발을 일으킨 국산옥수수수는 전년도 5만3천톤에서 4만6천톤으로 축소했지만 배합사료용으로 계속 배정키로 했다.

89년 사료원료 수입계획

구 분	수 량	비 고
옥류	6,320천톤	
옥수수	3,777	
기타곡물	2,543	
타피오카	300	
식물성박류	422	4만톤
대두	889	배정유보
(식용유용)	(839)	5만톤
동물성단백질	47	배정유보
알팔파	70	
부기질·기타	1	어류용사료
		첨가제 2백톤
대두용 유장분말	6,003톤	
어류용배합사료	450톤	
합계	8,055천톤	
	(7,965)	

() 내는 유보후 배정량임.

※ 88년산 국산대두 수매량증대에 따라 대두 3사 인수량증가가 예상됨으로 대두및 대두박 수입계획량중 대두5만톤, 대두박 1만톤을 유보하여 수급사정에 따라 조절.

농업기술자협회 '89겨울농민대학' 개설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류달영)은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농업기술진흥관에서 2월13일과 17일부터 각각 4박5일씩 겨울농민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국제화 시대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새로운 영농정보와 과학적인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리위주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증산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민대학을 개설한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문의처는 (02)794-7270

축협중앙회 배합사료가격 인상

축협은 중앙회직영 7개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을 일반사료가격인상에 이어 지난 1월5일부로 7%인상했다.

배합사료가격 조정표

	종전가격	인상가격
어린병아리	4,653	5,170
중병아리	4,191	4,675
큰병아리	3,575	4,048
산란초기	3,784	4,136
산란중기	4,048	4,378
육계전기	5,357	5,874
육계중기	4,994	5,500
육계후기	4,829	5,522
종계	4,048	4,587

축협 선거관리지도부 신설

—조합장 및 대의원선거 업무관장—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1월 14일자로 축협 조합장 및 대의원의 직접선거를 지도할 선거관리지도부를 신설했다.

선거관리지도부는 지난해 개정된 축협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있게 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대의원선거, 중앙회의 임원선거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행하기 위해 설치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를 비롯하여 선거관리 지도와 관련규정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한편 민원처리, 공정선거교육, 홍보 등을 전담하게 되며 내년 5월까지 시한부로 운영하기로 했다.